

8장 마헬살랄하스바스의 징조와 실로아의 잔잔히 흐르는 물

1. 마헬살랄하스바스 (8:1-4)

여호와께서는 아하스가 믿지 않았을 때 임마누엘의 징조를 약속하셨고, 그 백성에게 마헬살랄하스바스의 징조를 보여 주셨다. ‘마헤르-살랄-하스-바즈’ [약탈물은 재빨리, 노략물은 겹싸게]라는 말로 그 아이가 ‘아빠’와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전리품이 앗수르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증인으로 삼으셨다.

예언자는 아내를 통하여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지었고, 예언대로 732년경에 다메섹은 앗수르에 멸망되었으며, 사마리아도 앗수르의 공격을 받아 갈릴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 본문에서 ‘임마누엘’과 ‘마헬살랄하스바스’를 붙여 놓고 가르치고 있으나, 실제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임마누엘의 경우는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12살 전후에 있을 일을 말하였지만, 마헬살랄하스바스의 경우에는 아이가 아빠와 엄마를 부르기 전이라고 하여서 2-3살 전후에 있을 이야기를 말하였다. 또한 두 아이의 대비를 통하여 부모를 밝히지 않은 ‘임마누엘’의 신비함이 더욱 강조된다.

2. 실로아의 잔잔히 흐르는 물과 임마누엘의 구원 (8:5-1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안으로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거부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베가)을 좋아한다고 하셨다. 사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의 공격을 피하려고 앗수르를 의지하기까지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곧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고 르신과 베가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셨다. 그들이 ‘세차고 넘치는 강물’을 좋아하므로, 그 강물 곧 것처럼 파괴적인 세력인 앗수르가 모든 수로에 차고 독마다 넘쳐흘러 유다까지 휩쓸 것이고, 유다는 겨우 목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참조 렘 5:22; 47:2). 다른 땅을 다 빼앗기고 목만 남게 되는 일은 주전 701년에 산헤립이 예루살렘만을 남겨두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유린한 일에서 이루어졌다.

예루살렘만을 남기고 적군이 다 점령한 모습은 마치 독수리 같은 큰 새가 모든 것을 덮고서 자기 아래 있는 모든 것을 공격하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8절에서는 ‘그의 퍼는 날개가 주님의 땅에 편만합니다. 임마누엘이여’ 하는 말로 그 모습을 그린다. 앗수르가 날개를 펴고 주님의 땅을 다 덮고 있지만, 그 땅을 ‘주님의 땅’이라 부르면서 ‘임마누엘’로써 그 문제를 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홍수가 넘칠 것 같고 독수리가 날개로 온 땅을 덮은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땅은 임마누엘의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소망한다. 임마누엘은 심판뿐 아니라 또한 구원을 가져오는 이름이다.

9-10절에서는 민족들에게 소리를 질러 보라고 한다. 그들이 회화하여도 반드시 패망할 것이고 허리를 동여도 패배할 것이며 계획을 세워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 곧 ‘임마누엘’ 때문이다.

‘임마누엘’의 이름이 7-8장에서 세 번 나오는데, 그 경우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3. 우리의 길과 그분의 길: 어둠과 빛 (8:11-22)

이사야서 8:11부터 보면 두 가지가 대비된다. “이 백성”으로 표현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 백성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처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며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고 앗수르를 의지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모시고 경외하면서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소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과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포로기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헤쳐나가도록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의 길이라는 말로써 ‘나의 백성’과는 구분하여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걷는 길과 하나님의 예언자가 가는 길은 구분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그들이 ‘정치적 모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반이라고 부르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라고 권고하신다(8:11-13).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곳, 즉 성소가 되신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를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표이다. 성소가 있으면 그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즉 임마누엘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큰 구원과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두 집, 즉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사람이 돌이나 반석에 걸려 넘어지고 그 위에 떨어져 상하듯이, 많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국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8:14-15).

여호와께서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제자들 중에서 공증하고 인을 쳐 두게 하셨다.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분께만 소망을 둘 것이다. 이사야와 두 아이는 이스라엘에게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 이사야(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와 스알야숨(남은 자가 돌아온다), 마헬살랄하스바스(노략이 신속하다) 이 세 사람은 그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으로도 이스라엘에 표징이 되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친히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표징이 된 것이다(8:16-18).

그런데 백성 중에서는 ‘속살거리며 읊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한 시대에 예언자는 ‘교훈과 증언을 따르라’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동이 트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굶주리면서 어둠의 땅을 헤매게 될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 신들을 저주하겠지만, 보이는 것은 여전히 고통과 암흑과 절망밖에 없을 것이다. 징계를 당해도 그 징계의 의미를 알면 소망이 있는데, 이 백성에게는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사망과 멸망,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8:19-22).

8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하게 하시며 그 징조를 보이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1-4절)
2. 마헬살랄하스바스가 엄마, 아빠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은 어디로 옮겨질 것입니까? (4절)
3. 여호와께서는 흥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인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덮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6절)
4. 이사야는 열방들이 환화하고 함께 도모하여도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10절)
5.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놀랄 때에도 여호와를 거룩한 자, 두려워할 자로 삼는 자에게

여호와와는 어떤 분이 되실 것입니까? (13, 14절)

6. 이사야는 야곱 집에 낮을 가리시는 하나님일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17절)

7. 이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찾아가는 그 시대의 백성에게 그들이 살길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20절)